

서울시립대, 대만 타이베이시립대 총장단 초청



서울시립대는 지난 27일(목) 본관 소회의실에서 대만 타이베이시립대의 추 인하오 총장, 리우 성타 국제교류처장 등 관계자 5명을 초청해 양교의 학술 교류 및 학생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학교는 지난 2021년 9월 학술 및 학생 교환 협정을 체결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7월에는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단이 타이베이시립대 도시관리대학을 방문하여 '저탄소 도시 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엔 타이베이시립대 총장단과 도시관리 전공 학생 9명도 함께 서울시립대를 방문해 도시행정학과 학과장 송영현 교수의 지도하에 서울시립대 학생과 세미나를 진행했다.

국내 최초로 도시과학대학을 설립한 서울시립대는 도시과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교다. 이번 협의로 양교는 도시과학 분야의 학술 교류 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추진하며, 학생 교환과 교수진 교류를 통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교육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국제교육원은 양교 간 협력 증진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하며, 학문 교류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현재 77개국 620개교와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대만 대학 12곳과 교류 중이다. 또한 2023학년 기준 연간 약 900명의 학생을 초청하고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숙명여대, '인프라 고도화 사업' 최종 선정

숙명여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지원하는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숙명여대 여성건강연구원은 5년간 사업비 67억 원을 지원받아 '시공간 멀티오믹스 기반 근골격계 질환 기전 규명 및 치료제 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생명시스템학부 양영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고, 약학부 배규운, 강교빈 교수, 화공생명공학부 최경민 교수, 생명시스템학부 김용환, 유경현, 이정복 교수가 참여한다.

이 시스템은 단일 세포 공간 분석 시스템,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단일형광분자레이저절단현미경 등 첨단 연구 장비를 활용해 구성된다. 이를 통해 시공간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생산하고 통합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다양한 질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며, 신규 바이오마커와 치료 타겟을 발굴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명지대, 인천 고교 교사 대상 'MJ 교사 콘퍼런스' 개최

명지대는 27일 인천시교육청과 연계하여 인천 송도 오코우드호텔 프리미어홀에서 인천 지역 고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MJ 교사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명지대 입학처가 주관한 이번 콘퍼런스는 인천 고교 교사에게 명지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을 안내하고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2025학년 대입의 주요 트렌드와 수시 모집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지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고교와 대학 간 정보를 교류했으며, 현직 고교 교사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